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1년... 유통업계 엇갈린 명암

대형마트 '울상' 재래시장 '미미' 편의점 '호황'

대형마트 납품 소상공·농어민 오히려 피해 단기 규제 위주보다 중장기 관점 접근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1년, 편의점과 대형 슈퍼마켓만 덕 봤다.’ 21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당장 매출에 타격을 본 대형 유통업체는 불쾌감을 드러냈고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타격 받은 대형마트 매출 ‘뚝’= 최근 5년간 5~9%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 3사의 지난해 실적은 저조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

면 지난 1분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합계는 작년 동기 보다 8.4% 떨어졌다. 월별로는 1월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24.6% 급감했고, 설이 포함된 2월은 8.9% 증가했다. 지난달엔 다시 4.4% 하락했다.

실제 이마트는 의무휴일이 4월부터 시행된 지난해 1월 매출이 전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2011년 20.9%와 비교해 4.3%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매장에 적용된 자율휴무 요일인 수요일의 매출 구성비는 2011년보다 1.1% 떨어졌다.

◇재래시장 혜택도 ‘기대 이하’= 의무휴일제에 따라 고객 유입을 기대했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은 아직까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형마트가 윈다고 소비자들이 다전통시장으로 물리거나 집 앞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게다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 휴무일 전날 장을 보거나 아예 장에 가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한 매출 효과는 미미한 편”이라며 “지켜보면 나아질 것이라 고 위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의무휴일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편의점이나 외국계인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 납품 소상공인 ‘반발’=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납품 소상공과 농어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의무휴일제를 휴일 이틀로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업계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농어민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수요만큼을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에서 떠안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일제 시행 이후 사실상 고물이 동결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 2회 휴무로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면 결국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가 우선 감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요일에 장보기를 선호했던 맞벌이 부부 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에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매출 이탈분을 전전 흡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효과를 판단하기엔 시기가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정서상 유통산업 전반에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긍정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빨리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에 단기 규제 위주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농협 '佳人會' 봉사 NH농협은행광주본부 여직원모임 '가인회(佳人會·회장 나미레)'는 20일 광주시 북구 이동복지시설인 '광주애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펼치며 아이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농협은행 광주본부제공>

경기불황 덕? 편의점 도시락 매출 쑥쑥

CU 65%·미니스톱 151% 증가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작년동기보다 65.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2% 늘어났다. 1월과 2월 53.4%, 43.0%였던 도시락 매출은 봄 나들이 시즌인 3월들어 더욱 증가한 59.7%나 됐다.

이 같은 도시락 인기는 오랜 경기 불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 식당 음식 가격 인상 등으로 점심 한끼 먹기가 부담스러워

진 직장인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CU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CU는 ‘고품격 차별화 상품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시락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이 ‘더블 BIG정식’(445g·3600원)이다. 더블 BIG정식 도시락은 작년 8월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소불고기 도시락을 누르고 도시락 판매 랭킹 1위에 올랐다.

미니스톱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4월 현재 작년동기보다 151% 신장했다.

미니스톱은 주력 도시락으로 ‘수제 돈까스도시락’, ‘돈까스오므라이스정식’, ‘야채참치비빔밥’ 등을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로 은행권 인하 추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4·1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한시적인 대출규제 완화와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구제 등 정책 목표에 맞는 상품 개발에도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허용폭을 1%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늘려 최저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이자 손실을

보전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상품은 오는 9월까지 2조원가량 판매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이탈을 막도록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겠다”며 “건전성이 좋은 비거치식(거치기간이 없는 대출)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3.8%로 책정한다. 우리은행은 또 4·1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신상품 개발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

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포함해 5조 4000억원 늘어 지난해 1분기(3조 2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다. 올해 들어 1월 4000억원, 2월 2조 1000억원, 3월 2조 9000억원으로 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분할상환 방식 기준으로 SC(3.98%)와 한국씨티(3.93%)를 제외하면 모두 4% 초반대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24시간 인터넷뱅킹 무역송금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무역 송금을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KJB e- 무역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KJB e- 무역송금 서비스’는 무역송금을 하는 수입업체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과 선 약정된 환율을 적용해 어느 시점에 송금하더라도 고정환율이 적용되도록 해 환율변동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신세계, 무등산 옛길따라 환경사랑 동반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가 주관한 ‘무등산 환경사랑 동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시민과 백화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동반대회는 무등산 원효사 주차장을 시작해 ‘무등산 옛길 2구간’을 따라 서석대까지 등정한 후 장불재 휴게소를 지나 원효사로 하산하

면서 무등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시민 김모(46·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는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이 광주신세계가 앞으로도 무등산을 위한 마음 따뜻한 행사를 계속해 무등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2월에 무등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 시민바자를 여는 등 무등산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주간 증시 포커스

변동성 확대 지속...IT·미디어·유틸리티 유망

KOSPI는 4월에만 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GDP성장률 둔화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 미국 내 테러 발생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세하고 있어 변동성 확대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가 하락보다 190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주요 이슈는 전체시가총액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자동차·소재·산업재 등의 실적 부진 우려다.

지난주를 고비로 잠복기에 들어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공조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노출된 약재로서 그 영향력은 점

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7.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며 신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가 확인되었다. 다음달 3일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종별로 일사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독별 대응력 강화에 집중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1·4분기 실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 수요회복과 전방산업의 호조로 이익 가시성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종과 내수주인 미디어·유틸리티 등의 경우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 대안이 될 수 있어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내수주 중 음식료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세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실적발표를 통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장성 확보 여부를 확인한 이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한편, KOSPI와 달리 2009년 이후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KOSDAQ시장은 경우는 가격부담에 따른 단기 숏고르기 과정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늘 푸른나무 -

모진 한파와 역사적 격변의 반세기를 거치며 스스로 뽑내지 않아도 빛나는 전통.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에도 광주일보의 호남인의 자존과 문화를 지키며 늘 푸르게 서 있겠습니다.

|주이노탑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